

강진 흑토마토·작두콩 미세면지 대응 '주목'

항산화 성분 풍부 청자골 흑토마토 미세면지 대응식품 각광 작두콩차도 환절기 알레르기성 비염 효능 유명세 타고 인기

미세면지와 황사가 이어지면서 대응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진에서 생산된 토마토와 작두콩이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작전면 일대에서 미세면지를 이겨내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청자골 흑토마토(까망토) 출하가 한창이다.

흑토마토는 현재 20여 농가가 8.6ha에서 매년 740여t을 생산해 마에그린공동선별장에서 선별작업을 거친 후 전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강진 건강 10대 농산품인 흑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일반 토마토보다 3배 가량 많아 강진군의 흑토마토 명품브랜드인 '까망토'로 전국 시장과 마트 등에서 출하돼 농가 소득의 효자 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군은 좋은 품질의 흑토마토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토마토(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전문 강사진을 초빙한 품평회를 수시로 시행 꾸준히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광호 한마음토마토 대표는 "토마토는 항산화능을 가진 대표적인 저열량 슈퍼푸드이러한 토마토의 효능을 홍보·마케팅에 적극 이용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토마토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체험관광 등을 통한 판로 개척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작두콩 역시 '숨 쉬기 편한 마법의 차'로 알려지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작두콩 차는 미세면지와 환절기 알레르기성 비염에 탁월하고 기관지 천식이나 축농증 등 호흡기 질환에 효능이 있다.



미세면지와 황사 대응 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강진 흑토마토(왼쪽)와 작두콩.

품질이 좋은 강진산 작두콩은 차로 만들어 상품화되면서 유명세를 얻고 있다. 음용법도 간단하다.

주전자에 물 1.5ℓ를 붓고 끓인 후 80~90℃에 작두콩 차 7-8조각을 넣은 후 2~3분 정도 우려내 마시면 된다.

또 작두콩 차 3-4조각을 밥 지을 때 함께 넣으면 구수한 향도 맡을 수 있다.

강진도깨비농장은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된 작두콩 차(80g)와 작두콩 차 티백

을 각각 1만원에, 선물세트는 3만 8000원에 초록민음작거래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홍여신 강진도깨비농장 대표는 "작두콩은 미세면지의 대표적 부작용인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다"며 "웰빙 식품인 작두콩차로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영암군, 읍·면 첫 농업인 실용교육 호응

11개 읍·면서 1500 농가 대상 벼 품종 선택 등 실시

영암군이 진행하는 농업인 실용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 들어 첫번째 농업인 실용교육을 11개 읍·면사무소에서 1500여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벼 품종 선택 및 재배기술, 토양관리기술 위주의 식량작물교육

과 양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농기계 교육, 발작물재배기술로 진행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읍·면 단위 교육이 완료되면 대봉감재배기술, 무화과재배기술 등이 진행할 예정으로 농업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장흥 버섯산업 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고용부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버섯산업 맞춤형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비 1억1000만원의 확보해 지역 버섯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흥군은 지난 1992년 산림청으로부터 표고버섯 주산지 지정받았지만,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중 노동력 부족이 50.4%를 차지할 만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생 30명을 선발한 후 국가자격증인

버섯종균기능사 취득과 취·창업에 대한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 128시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버섯산업 실정에 맞는 취·창업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각급 취·창업 지원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생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버섯종균기능사 국가기술자격시험장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도 '버섯종균기능사 취득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버섯종균기능사 취득 17명, 취창업 11명의 성과를 달성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세계요리·홈베이킹·브런치 만들어 보세요"

영암군청소년수련관, 토요체험프로그램 각광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여가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토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기로 운영되는 토요체험에서는 최근 먹거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반영해 행복을 만드는 요리라는 주제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세계요리, 홈베이킹, 브런치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진>

참여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요리를 통해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받고,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소년수련관 활동지원팀(061-470-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0년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시설 개보수 작업을 거쳐 최근 쾌적한 환경의 시설로 탈바꿈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강진군, 설 전 벼 경안대책비 38억 지급

강진군은 쌀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해, 설 명절 전 벼 경영안정대책비 38억원을 전역 군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강진군은 2017년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2년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 예산 규모로는 전남도 내에서 최대다.

지급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강진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며, 최소 1000㎡ 이상 최대 3ha까지 범위에서 지원한다.

올해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면적은 6594ha, 지급단가는 1㎡당 57.3원으로 최대 171만9000원까지 관내 실경작 벼 재배 전 농가에 지급된다.

송승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현대삼호중, 설 앞 둔 협력사에 150억 지급

서남권 최대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설을 앞두고 협력회사들의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재대금 조기 집행으로 약 200개사가 150억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금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납품된 자재에 대한 것으로 원래 지급일보다 2주 가량 앞당겨 31일 집행한다.

이와 함께 현대삼호중공업은 회사 인건 사회복지시설 30개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등 생필품과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기로 했다.

회사 임원과 부서장 등 주요 간부는 별도로 조직한 후원회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 12세대를 찾아가 위문금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장흥군, 읍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장흥군은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쾌적한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하수도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국비 74억원을 확보했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농어촌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용산 용인, 부산 유량, 회진 이진곡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장흥 덕재, 안양 신촌, 관산 중사는 올해 작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특히 용산 용인은 3월 준공을 목표로

하수처리장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덕읍 산외, 관흥, 산정 구역 등에서 실시설계용역중이고 올해 상반기 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2021년까지 7개소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하수도 보급률을 전년도 68%에서 72%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하수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비 점검도 차질없이 추진해 하수도 시설 파손, 하수도 막힘으로 인한 악취 발생 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